테러예방을 위한

해외진출기업의
이슬람 문화 이해 가이드

테러예방을 위한

해외진출기업의
이슬람 문화 이해 가이드

테러예방을 위한

해외진출기업의
이슬람 문화 이해 가이드

목 차

1. 이슬람과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

[1] 이슬람·무슬림·꾸란 1

[2] 무슬림 5대 의무 2

[3] 무슬림의 생활 문화 4

2. 이슬람권 현지 갈등 사례

[1] 이슬람에 대한 이해 부족 9

[2] 무슬림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12

[3] 무슬림의 문화·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16

1. 이슬람과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

[1] 이슬람·무슬림·꾸란

- **이슬람(Islam):** 우주의 창조자인 알라(Allah, 하나님)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며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은 '무함마드'가 610년에 이슬람교를 창시

  * 이슬람교, 유대교,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교리상은 물론 정치·사회·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 중

- **무슬림(Muslim):** '이슬람을 믿는 자'라는 의미로, 아브라함·모세·예수와 함께 '무함마드'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로 믿고 존경하며 세계 인구의 22%인 약 17억 명이 무슬림

- **꾸란(Quran):** 이슬람 경전, 알라(하나님)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'무함마드'에게 계시한 내용을 그의 사후에 집대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여한 기적이자 '무함마드'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믿음

  * 무슬림들은 꾸란을 읽기 전 손을 씻고 마음을 경건히 하며 왼손으로는 만지지 않고 꾸란 모독은 곧 알라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므로 비방도 용납되지 않음

- **하디스(Hadith):** 알라의 말씀인 '꾸란'과는 달리 '하디스'는 '무함마드'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'꾸란'에 대한 이해를 돕고, 무슬림들의 행동규범을 규정하는데 활용

- **샤리아(Sharia):** 꾸란과 하디스를 기본으로 한 이슬람의 法체계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한 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행동양식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침

  * 대부분 종교법 등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서구의 법 체계를 준용

[2] 무슬림 5대 의무

- **샤하다(Shahada ; 신앙고백) :** '알라 외에 신은 없고,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한다(라 일라흐 일랄 라흐 무함마드 라쑬룰라)'라는 구절로 이슬람에 입교하기 위해 증인 앞에서 암송해야 하며, 평소 기도시에도 수시로 암송

  * 이슬람권 국가의 국기는 물론 ISIL·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깃발에도 사용

왼쪽부터 사우디 국기, ISIL 깃발, 지하디스트 깃발

- **살랏(Salat ; 기도) :** 무슬림들은 매일 5회 사원 첨탑에서 예배시간을 알리는 '아잔' 소리가 들리면 사우디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

  * 파즈르(새벽)·두후르(정오)·아스르(오후)·마그랍(일몰전)·아쉬(초저녁)

  * 일과 중에는 조용한 공간에 매트를 깔고 기도하며 금요예배 이외에는 5분 이내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급한 일이 아니라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예의

  * 사원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'이맘'이 있으나, 생업과 병행하여 약간의 보수만 받을 뿐 기독교와 같은 성직자 제도는 없음

- **자카트(Zakat ; 희사) :** 무슬림들이 내는 종교 기부금으로 사원 건립, 종교 행사 또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며 가난한 자는 면제

  * 수입의 1/40 정도를 기부하며 꾸란에서는 예배와 희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무슬림들은 이교도로서 내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기술

- **싸움(Sawm;단식):**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(30일) 동안 신에 대한 복종과 믿음의 표시로 일출 전부터 일몰까지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병자·임신·노약자·어린이 등은 의무에서 제외

  * 해가 지면 '이프타르(Iftar)'라는 단식을 깨는 식사를 하는데 친척과 이웃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밤늦도록 간식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눔

  * 이 기간중 수면 부족과 허기·갈증 등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업무 처리가 느리더라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

- **하지(Haji;성지순례):** 이슬람력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 메카에 있는 카바신전, 미나계곡, 아라파트동산 등을 방문하는 행사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한 무슬림은 일생 동안 한번은 해야 하는 의무

  * 성지 순례를 마치면 '하지' 칭호가 주어지며, 무슬림들은 이 칭호를 받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여기고 하지기간 외에 카바신전을 순례하는 것은 '오무라'라고 함

성지순례중인 무슬림

[3] 무슬림의 생활 문화

- **가족(가문·부족) 제일주의:** 무슬림들은 가족과 가문에 대한 충성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, 가까운 친척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임

  * 개인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고 어떠한 추문도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, 이성간 부정으로 인한 불명예는 '명예살인'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, 최근에는 부족적인 습성이 강한 지역에만 잔존

- **여유로운 성격과 행동:** 꾸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'신이 일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기 때문에 매사를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알라에게 맡기라'고 명시

  * 한국인의 '빨리 빨리'라는 말과 달리 무슬림들은 '슈와이 슈와이(천천히 천천히)'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사업상에서는 '부크라(내일)'라는 말은 '다음에'라는 의미

  * 또한, '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알라에게 맡긴다'는 뜻의 '인샬라'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통상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정확한 뜻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

- **활발한 토론 문화:** 토론하며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사소한 주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토론

  * 토론에서는 의견을 분명히 하는 편이나 상대방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피하며 토론이 격해지는 경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의 일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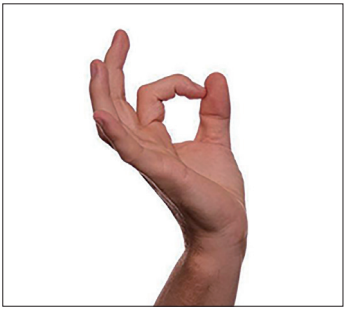
  * 토론 중 제삼자가 끼어들어 집단토론으로 확대되는 일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정중히 제지하는 자세가 필요

- **아랍 무슬림들의 제스처:** 아랍 무슬림들은 대화할 때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며 악수후 오른손 손바닥을 가슴에 대는 행위는 '존경과 감사'를 표시하고 여성과 인사할 때 악수없이 이 제스처를 사용

* 고개를 뒤로 젖히며 '쯧'하고 혀를 차는것은 '아니오'라는 대답이고 손바닥을 위로 하여 손가락을 모으고 아래 위로 흔들면 '천천히, 진정해'라는 뜻

* OK 사인은 상대방을 위협할 때 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눈을 피하면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주 보고 대화하는 자세 필요

기다려, 천천히



죽고 싶어?

- **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사생활 중시:** '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절대 신뢰하되 금기한 것은 철저하게 따르지 말라'는 꾸란의 구절로 인해 무슬림은 낯선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한번 신뢰하게 되면 끝까지 신뢰

  * 사람을 대할 때 위엄과 품위를 지키려고 하며 자신의 비밀이 공개되어 위엄이 떨어지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므로 비밀은 상대방과 절대적 신뢰가 형성된 이후 공유

  *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상대방과는 원수가 되더라도 개인적 비밀은 폭로하지 않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

  * 아무리 신뢰가 두터운 관계라도 사적인 것은 공유하지 않으며 특히 집안 여성의 안부를 묻거나 외모에 대한 칭찬은 오해를 살 수 있고 부동산·급여 등 재산을 묻는 것도 금기시

- **보수적이며 강한 인내심을 보유:** 7세기에 완성된 꾸란은 내세를 구속하는 율법으로서 실정법적 효력을 발효

  * 꾸란이 무슬림들의 보수적 성격을 유도하여 서구 문화의 수용을 경계하게 하고 독자적인 문화나 관습을 지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

  * 척박한 유목 생활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데 익숙한 편으로 무슬림과의 각종 협상 시에는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

- **인사 예절:** 머리를 숙이는 인사나 큰 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알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머리 숙이는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

  * 인사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통상 특정 지점을 지나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하고 내부나 특정 장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은 상대방의 인사 후에 대응

  * 통상적으로 악수를 하고 친한 사람들과는 포옹하면서 볼을 맞대기도 하지만 가까운 친척 이외에는 이성간의 신체 접촉은 금기

아랍식 인사

- **결혼관:**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느슨해지기는 했으나 남자는 노동으로 여자와 가족을 보호하고, 여자는 내조로 남자와 가정을 보살핀다는 역할 관계가 아직도 지배적

  * 이슬람법에서는 무슬림간 결혼을 장려하며 여성들은 이교도와 결혼할 수 없고 일부다처제는 전쟁중 발생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

- **정조 관념:** 무슬림들은 성의 순결성을 강조하여 혼인을 약속했더라도 혼전 성관계는 가질 수 없고 비교적 개방적인 요르단에서도 공개 연애는 드물며 양가의 허락 후에 정식으로 교제

  * 무슬림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허락 없는 사진 촬영, 혼자 있는 집을 방문 하는 것 등은 삼가야 하고 어린 여자아이 이외에 성인 여성을 위한 선물도 금기

  *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스쳐 지나갈 때에는 몸을 비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하며 통상 버스에서도 남녀가 구별하여 착석

- **음식 문화:** 할랄식으로 도축된 음식(할랄 음식)만 섭취하며 할랄 음식이 아니면 불결하다고 생각

  * 동물의 피·뼈 등은 먹지 않으며 돼지와 함께 개는 '좋지 않은 동물'이라고 무함마드가 정의해 금기시. 또한 해산물은 할랄 음식이지만 날 생선은 잘 먹지 않음

  * 차와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여 집이나 직장 등에도 차 끓이는 도구가 구비되어 있고 우유나 허브를 첨가하기도 함

- **의복 문화:** 여성들은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신체를 가리고 외출을 하는데 머리를 가리는 것은 '히잡'이고 눈 밑까지 가리는 것은 '니깝'

  * 요르단·레바논·터키 등은 '히잡'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, 사우디는 눈 밑까지 가리는 '니깝'을 하고 외국인도 머리 등을 가리는 '아바야' 착용을 의무화

  * 남성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현지 관습과 종교적 미덕으로서, 이는 알라의 使者들이 수염을 잘 다듬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면도가 보편화

- **손님 접대:** 무슬림들은 손님 접대를 좋아하여 상대방에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예의와 존경으로 대접

  * 양·닭 등의 요리를 대접하며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전통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빵을 제외하고는 수저를 사용

  * 손님이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여 점심식사 초대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고 저녁식사 초대자리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빈번

2. 이슬람권 현지 갈등 사례

[1] 이슬람에 대한 이해 부족

❶ **무슬림 금요예배 불허:** 인도네시아 우리 사업가는 생산설비가 고장나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자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금요예배를 10분 내에 끝내고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, 결국 사과 후 금요예배를 보장

▶ 예배는 무슬림들의 5대 의무중 하나이고 특히 금요예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여건이 되면 사업장내에 기도실을 마련해 주어 작업능률 제고 필요

❷ **종교적 상징물 무단 접촉:** 이라크 사업장 근로자는 '이맘 후세인'(시아파 초대 이맘)의 추모 깃발이 쓰러진 것을 보고 도와줄 마음으로 세웠는데, 이를 목격한 현지인들이 깃발을 훼손한다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들도 상황을 오인, 근로자를 협박

▶ 이교도와 무신론자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므로, 이슬람과 관련된 사소한 것도 현지인과 의논, 오해 소지 사전 차단 필요

❸ **이슬람 이외의 종교 활동:** 쿠웨이트 사업장의 근로자가 제3국 출신 근로자들과 공사장 인근에서 기독교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지켜본 현지인의 신고로 당국에서 동 근로자를 제재하여 강제 귀국 조치

▶ 쿠웨이트 정부는 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슬람 이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락하고 있지만, 무슬림 대상 선교활동은 엄격히 금지

❹ **이슬람 교리에 대한 농담:** 사우디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슬림 동료에게 '순교 하면 천국에서 많은 미녀를 거느릴 수 있어서 좋겠다'라고 농담하였다가 폭행을 당하고 종교모독죄로 6개월간 징역형을 당한 후 추방되었으며 인접 국가에서도 동명을 입국금지 조치

▶ 무슬림들에게 순교란 신성하고 영예로운 죽음으로 이슬람 창시자인 '무함마드'는 물론 많은 예언자들을 순교자로 추앙하고 있어 순교 등의 종교와 관련된 발언은 삼가해야 하고 농담 소재로는 절대 금지

❺ **라마단 중 금식:** 알제리에서 첫 근무를 한 근로자는 현지인 동료가 라마단 금식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직접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라마단 종료후 가져간 인삼주를 보양 음식으로 제공하였지만 현지인 동료와 친구들이 몰려와 화를 내며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

▶ 라마단 금식은 무슬림들이 청소년기부터 경험하는 익숙한 행사로 환자는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건강을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음식을 권함으로 인해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신경을 예민하게 할 수 있어 절대 금기

❻ **라마단 기간중 취식:** 알제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연구원이 라마단 기간중 야외에서 샌드위치를 먹자, 이를 목격한 현지인들이 몰려와 자택에서 조용히 먹을 것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

▶ 라마단 기간중 공공 장소에서의 취식은 금해야 하며 무슬림도 불가피하게 취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취하며 음주는 평소에도 각 국에서 허용한 호텔·식당 등에서만 가능

❼ **돼지고기를 이용한 기원제:** 나이지리아 사업장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린 안전 기원제를 하였는데 현지 부족민들이 반발하며 알라의 분노를 풀기 위한 '공사장 주변에 양의 피를 뿌리는 의식'을 요구하여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5일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

▶ 꾸란에서 돼지를 더러운 동물로 간주하여 취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국가에서 돼지고기 취급은 자제하여야 하고 기원제 등을 실시할 경우 현지인과 사전 상의, 현지 실정에 맞게 실시 필요

❽ **반려견 동반 사원 출입:** 오만에서 외국인 남성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려다 현지인들이 제지하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하여 현지인을 칼로 공격하였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어 2개월 만에 석방

▶ 꾸란은 개나 돼지를 청결하지 못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어 이슬람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동물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종교와 관련된 외국인의 행동은 현지인들에게 주시 대상임을 명심

[2] 무슬림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

❶ **무슬림들의 시간 관념:** 중동산 섬유 수입을 위하여 이집트를 방문한 사업가는 업체 관계자가 연락 없이 2시간 늦게 나타났고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자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귀국

▶ 아랍인들은 오랜 유목생활로 인해 시간 관념이 느슨하고 약속에 늦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시간 준수 여부만으로 신뢰도를 판단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제반 상황과 주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

❷ **나에 대한 비방은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것**

- 요르단 사업장의 작업반장이 현지인들의 근무 태만에 화가나 영어로 욕설을 하자 현지인들이 작업반장을 폭행, 쌍방 폭행으로 확대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'현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'고 합의 후에 석방되어 귀국

- UAE 사업장 작업반장은 현지인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며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현지인은 모욕감과 위협을 느꼈다며 현장책임자에게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며칠 후에 현지인들을 동반, 작업반장을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며 협박

- 인도네시아 사업장의 작업반장은 현지인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을 보이자, 큰 소리로 질책하였는데 현지인들은 저속한 언어와 난폭한 행동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사업장측은 사태 진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장을 대기발령 조치

▶ 무슬림들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상사의 질책을 자신은 물론 가문에 대한

불명예로 인식하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 또한 현지 부족민 출신일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면 문제 확대 차단을 위해 대화와 설득 또는 현지인을 내세운 협상이 필요

❸ **공권력에 대한 모욕:** UAE에 진출한 사업가는 비자 연장을 위하여 인접국 방문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불친절하게 입국 심사를 지연시키자 삿대질을 하며 항의, 이로 인해 공권력 모독죄로 현지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

▶ UAE는 공권력에 대한 모욕이나 도전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관대하게 처벌된 경우이며 삿대질만으로도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언행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

❹ **팔은 안으로 굽는다?:** 한·우즈벡 합작회사의 우즈벡측 대표가 현지 他업체에 보증을 서거나, 자재 단가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였지만 현지인 법률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에 '손을 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. 그만 두는 게 좋다'는 등 현지인만을 대변

▶ 우즈벡은 이슬람문화(계약위반도 신의 뜻)·舊소련의 잔재(중앙통제 경제체제·관료주의) 등으로 인해, 피해 기업 구제방안이 미흡하고 정상적 재판을 기대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

❺ **경제력 무시 언행:** 이집트 사업장 근로자는 현지인 동료가 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, '형편이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된다. 우리도 옛날에는 어려웠다. 그냥 주겠다'라고 언급하자 현지인 근로자가 흥분하여 동료들과 함께 몰려와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사과를 요구

▶ 아랍권에서는 소액의 경우 빌린 후 갚지 않거나 굳이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,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도움은 우정으로 받아들이고 갚는 것을 오히려 민망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행은 경제적으로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유의 필요

❻ 불필요한 신체 접촉

- 요르단 사업장의 보안책임자는 방문증 없는 외부인이 공사 현장에 들어온 것을 목격하고 경비원을 불러 모자를 치면서 재발 방지를 강조하였는데, 화가 난 경비원이 보안책임자를 폭행하였고 결국 경찰서에 쌍방 폭행으로 고발

- 이라크 벌목 사업장 감독관은 현지인 근로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며 나무가지로 다리 부분을 가볍게 때렸는데, 엄살을 부리면서 소속 부족을 동원하여 1만불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해 와, 부족대표에게 7천불을 지급하는 선에서 무마

  ▶ 무슬림들은 자신의 신체를 건드리는 행위를 모멸감으로 받아들이며, 개인 문제가 아닌 부족의 집단행동으로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신체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가능성 상존

-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장 근로자가 '잘해 보자'며 장난삼아 현지인 근로자와 서로 머리를 박았는데 현지인이 인격 무시와 폭행이라며 우리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하고 동료들을 선동, 파업에 돌입

  ▶ 인도네시아인들은 어린이를 칭찬하며 머리 만지는 행위를 금할 정도로 머리를 영혼이 들어있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

❼ **사생활 언급:** 訪韓시 같이 음주를 하였던 인도네시아 무슬림 친구가 귀국한 후 '너는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, 융통성 있는 멋진 친구다. 또 놀러 오라'고 메일을 발송하자 인도네시아인 친구는 '난 술 마신 적 없는데 네가 과음해서 착각한 것 같아'라는 내용으로 답신

▶ 무슬림은 원수가 된 상대방 비밀도 폭로하지 않을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여행시 음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서로 언급하지 않는 게 불문율

❽ **현지인 근로자는 사전 협의후 해고:** 파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업체는 근무시간에 사업장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현지인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해고하였는데 이후 해고 근로자 일부가 삽 등 흉기를 소지하고 사업장에 몰려와 우리 근로자 등을 폭행하면서 살해 협박

▶ 근로자 다수가 同鄕 출신인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지역·종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고시에는 영향력이 있는 부족장과 충분히 상의하여 불만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것도 필요

❾ **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:** 이라크에서는 기념일에 폭죽과 총기를 사용, 축하행사를 하는데 간혹 사업장에 실탄이 날아 들어 안전이 우려되자 사업장측은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 및 인근 부족에게 행사용 폭죽 제공을 통해 총기사용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

▶ 소통을 통해 지역 부족과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현지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지역 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평소 지역 커뮤니티와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

[3] 무슬림의 문화·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

❶ **첫 인사는 악수로:** 시장조사차 이라크를 방문한 사업가는 정부기관 관계자와 첫 만남에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당황하며 안절부절 하였고 사업가도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여 첫 만남에서 난처한 상황이 연출

▶ 정부기관 관계자가 당황한 것은 한국식 인사법 때문으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고개를 숙이는 대상은 알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악수만으로도 충분

❷ **근무시간 중 티타임:** 터키 진출기업 임원은 현지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차를 마시고 흡연하면서 대화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차 주전자를 치워버렸는데 현지인들이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자 사과와 함께 다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조치

▶ 터키에서는 다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러한 습관을 근무 태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, 함께 어울려 대화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기회로 인식하는 자세 필요

❸ **일부다처제 오해:** 사우디에 간 사업가는 현지인이 옆 좌석의 백인여성 미모를 칭찬하자, '당신도 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?'라고 가볍게 언급하였는데 현지인은 '당신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. 여성들은 노리개가 아니다'고 정색하여 '미안하다, 나쁜 뜻은 아니었다'고 사과

▶ 아랍인들 사이에서 일부다처제는 과거 전쟁으로 발생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농담 소재로 삼는 것은 반발을 초래

❹ **이성에 대한 선물:** 알제리 사업장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현지인 여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업무상으로 도움 받을 일도 있어서 가벼운 선물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현지인들이 몰려와 강력하게 항의하여 결국 귀국

▶ 여성에게 선물 하거나 따로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이에만 허락되며, 보수적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수도 있어 여성과의 사적인 접촉이나 호감 표명 등은 자제 필요

❺ **여성에 대한 언급:** 이라크 연구소의 외국인 연구원은 현지인 동료의 여동생 사진을 보고 '섹시하다. 소개시켜 달라'고 하였다가, 동료와 현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연구원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영구 추방

▶ 무슬림들은 가족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내 여성에 대한 가벼운 농담을 가문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슬림과 만날 때는 집안 여성에 대한 성적 농담은 금지

❻ **여성에 차 접대 강요:** 요르단 진출기업 지사장은 여비서가 방문 고객에게 차 접대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'가정교육과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'며 주의를 주고 타 부서로 배치하였는데 여비서가 지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

▶ 여성이 아닌 남성이 손님에게 차를 접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를 요구하며 가정교육 등을 언급한 것은 가문에 대한 무시로 인식될 수 있어 여직원 고용시에는 세부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

❼ **무단 사진촬영:** '중동 소개책자' 제작을 위해 카타르를 방문한 외국 사진작가는 도심의 특색있는 건물들을 촬영하던 중, 우연히 무슬림 여성과 경찰서를 찍게 되었는데 여성과 공공건물 무단 촬영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이틀간 구금 조사 후 석방

▶ 카타르에서는 정부기관·대사관 등 공공기관이나 여성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어 사진 촬영시에는 주위에 관련 대상이 있는지 주의 필요

❽ **떠돌이 동물 취식:** 터키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길거리에 떠돌던 개를 보고 '주인이 없으니 괜찮겠지'라며 잡아서 공사장에서 취식하였는데 이를 본 현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주의 조치

▶ 터키에서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를 보살피는 동물 애호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은 물론, 嫌韓 감정 유발을 통한 안전문제로도 직결 가능

❾ **주류 반입:** 사업차 이란을 방문한 중소기업 CEO는 현지에 체류하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소주와 양주를 반입하다가 입국 심사과정에 적발되어 압수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駐이란 한국대사관에도 통보

▶ 이슬람 국가내 주류 반입 적발시 '몰랐다'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, 적발되면 압수에 그치지 않고 법적 조치는 물론 외교적 문제로도 확대 가능

❿ **음주 후 공개장소 배회:** 카타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음주 후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해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연행되어 1일간 구류되었다가 석방

▶ 카타르는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라 허가된 장소에 한해서만 음주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, 음주 후에 공공장소 배회·고성방가·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

⓫ **알콜성 발효식품 반입:** 쿠웨이트 사업장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음식물(고추장·된장·조미료)을 이사화물로 발송하였는데 세관 당국이 관계규정(알콜성분 0.5% 초과)을 근거로 모두 압수 조치

▶ 쿠웨이트는 타 중동지역 국가와 달리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알콜 성분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식품은 반입 불허

⓬ **공개적인 돼지고기 취급:** 이스탄불 일부 한식당들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야생 멧돼지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현지인의 신고로 조사 후 벌금 납부

▶ 터키는 이슬람 국가에서 금기사항인 돼지고기 취식에 대해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공개적인 돼지고기 유통이나 불법적인 취식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있어 유의 필요